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구조 변용*

김 경 남**

【국문초록】

본고는 일제가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을 침략함에 따라 추진된 식민도시개발의 한 유형으로서, 전통적으로 전북지역의 중심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도시개발 특성과 사회경제구조 변화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근대도시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함께 전략적으로 개발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도시'전주의 경우도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의 전쟁터였기 때문에 일제는 전략적 군사적 목적에 따라 통신망, 도로, 철도 인프라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강제병합 이후 일제는 부제, 면제를 통해 전통도시를 선억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군산, 부산, 인천 등은 '부'로 성장하였고, 전통도시 전주부는 전주군의 여러개 면으로 나누어져 그 중심부 4개면을 전주면으로 지정하였다.

둘째, 전주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전라북도청이나 전주면을 일본인들이 장악하게 됨으로써 일본인 중심 시가지를 대정정 1정목에서 7정목까지 만들었다. 이 과정은 일본인이 전주를 침탈하는 과정으로서 중심시가지가 변형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종교시설 종묘나 향교시설 등은 구성곽 밖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새로 들어온 일본사찰,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 종교 관련 시설물들은 새로 형성된 도심지역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형성 과정은 전주의 지역 로칼리티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1920년대 전주에는 일본인 중심의 신시가지가 만들어지고 상공업지구가 형성되었다. 이에 지물업, 공예업, 직물업, 약품업 등 수십년간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한국인 중소 상공업자본가들은 본정, 대화정, 다가정을 중심으로 큰 상점을 경영하였다. 또한 1920년대 한국 전체 공업의 특징과 같이, 전주지역에도 값싼 노동력에 주목한 노동집약적 공업이 발달하였고, 기계기구공업은 거의 전무한 전형적인 식민지형 산업구조를 나타낸다. 전주에는 방적공업, 식료품공업, 생사공업, 인쇄공업 등에서 약 1천명 이상의 공장노동자가, 도시서비스부문에서 관료, 의사, 은행원, 회사원 등이 급료생활자가 형성되어, 자본주의적 사회경제구조로 변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일제가 전략적으로 신설한 개항장 도시와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개발 양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종래 개항장에서 성장한 도시를 중심으로 연구되던 경향을, 전통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3617)

** 전주대학교

도시의 변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근대 도시 연구에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변형된 근대도시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전통도시, 전략적 도시개발, 부제, 면제, 전라북도, 전주, 자본주의, 상공업지구

◆ 차례

Ⅰ. 서 론
Ⅱ. 제국주의 전쟁과 일제의 전북지역 거점도시 개발 관계
Ⅲ. 전주 개발억제정책과 소규모 일본인사회의 형성
Ⅳ. 전주지역 시구개정과 지역개발의 식민성
Ⅴ. 전주지역 상공업지구와 자본가·공장노동자 형성
Ⅵ. 결 론

Ⅰ. 서 론

19세기 20세기 초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침공에 따라 제국주의의 식민지쟁탈전이 한반도에서도 전개되었다. 조선은 1866년 프랑스와 3회에 걸친 양요를 겪었고, 1871년 미국과 신미양요를 치렀으며, 결국 1876년 운양호 침격사건을 빌미로 메이지정부의 요구로 인천과 부산은 강제 개항되었다. 부산포에는 300여년 이상 쓰시마(対馬)가 독점무역권을 행사하던 왜관이 있었으나, 메이지정부는 쓰시마를 폐번치현(廃藩置県)하고 부산포의 초량왜관도 조선정부의 허가없이 점령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중국의 대련과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조선해협을 차지하자 영국 또한 거문도를 점령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였다.[1)]

이러한 열강의 세력 각축전에 따라 일본도 영국과 미국의 힘을 빌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독립적인 근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본의 대륙침략 거점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개항장 거류지였다. 메이지정부는 거류지를 세력 확대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점차 주변지역으로 반경을 확장해가면서. 재조일본인들을 이주 정착시키는 형태로 조선을 지배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항장 거류지가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조선시대 전통적인 지역의 핵심도시들은 도전을 받게 되어, 식민권력에 의해 식민지적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식민도시의 운명은 한국인 관료와 지역 민중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흥망성쇠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강하였다.

대체로 지금까지 한국의 근대 식민지적 도시에 대한 연구는 수도 경성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군산, 목포 등 개항장·개시장에서 성장한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2)] 최근 김제,

1) 이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金慶南「朝鮮海峽への要塞·軍港建設と國際關係」坂本悠一編『地域と軍隊 帝國の最前線』吉川弘文館、2015 참조.

2) 손정목, 하시야 히로시(橋谷弘)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각 지역별로 보면, 목포 고석규, 군산 김인영, 김영정, 소순열, 김태웅, 부산지역 기무라 겐지(木村健二), 사카모토 유이치(坂本悠一), 김경남, 장선화, 경성

전주, 청주 등 '전통도시'(이하 전통도시로 표기)[3]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료에 대한 체계적 기초조사는 물론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도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조선시대에 지역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 전통도시에는 감영이 있었고, 지역의 행정 및 정치·사회·경제의 중심지이었다. 남부지역에는 대체로 경기도의 수원, 충청도의 공주, 전라도의 전주, 경상도의 대구, 강원도의 원주에 감영이 있었고 성곽도시가 만들어져 있었으며 각 지역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각 지역에서 전통적인 중핵도시들에 대한 일제의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총독부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행정제도로서 '부제'(府制)와 면제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역 중심도시 '부'를 지정하는데, 수도인 경성과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중핵도시 모두를 제외시켰다. 이 전통도시들은 일제 지배 초기에는 대체로 면이나 읍으로 지정되었다가, 식민지 지배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시점에 '부'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신흥도시들에 중심적 기능을 탈취당하였다. 전통적으로 중핵도시들에는 기존 지배 세력이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제는 이러한 도시개발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근대 도시는 일제 침략에 의해 온전히 한국인이 자력으로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상품화폐경제 질서는 굴절되고 왜곡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근대도시는 곧 개항장에서 발전된 식민도시라는 인식이 연구의 중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보면,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중심을 형성하였던 전통도시가 외래세력 특히 일본의 조선침투에 의해 어떻게 식민지적으로 변형되어 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근대도시에 대한 연구는 일제침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부제'로 성장한 부산, 인천, 군산, 목포과 같은 식민도시와 함께, 전통도시가 식민도시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사례로서 전북지역의 중핵도시 전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전북지역에는 군산항이 군산부로 승격, 배후도시로 이리(현재의 익산)가 신설되었고, 관찰사가 파견되던 전주부는 전주군으로 개편된다. 전주는 총독부의 전통도시에 대한 선억압 후개발정책(1938년이 기점)으로 인해 초기에는 그 중심부가 부동, 부서, 부남, 부북면 4개면(전주면)으로 분할 지정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일제의 조선대륙병참기지화 정책과 함께 전주읍, 전주부로 승격되기 때문에 식민도시와 전통도시의 불균등개발에 대한 상호관계가 보다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통도시 전주의 도시공간은 일제의 식민지화에 의해 어떻게 재편되었는가. 그 실태에 대한 연구는 유흥교·홍준표의 「전주 도시구조의 변화-일제시대」[4] 장명수의 『성곽발

지역은 염복규, 김백영 등의 연구가 참조된다. 자세한 것은 김백영의 연구사정리가 참조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나진·함흥·흥남지역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水野直樹, 板垣龍太, 谷川龍一, ヤンスンキなど, 北朝鮮フンナムの歴史都市空間ワークショップ, 2014) 재조일본인사회에 대한 연구는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다카사키 슈지(高崎宗司), 기무라 겐지(木村健二), 김형식, 이규수, 김경남 등의 연구가 있으며, 우찌다 쥰(内田じゅん), 이규수의 연구사정리가 참조된다.

3) 본고에서 사용하는 전통도시는 조선시대 이래 각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개항장도시와 구별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대체로 경성, 평양, 대구, 전주, 공주, 원주, 의주, 해주, 청주, 충주, 상주, 경주, 진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시기의 도시연구는 개항장에서 성장한 도시와 전통적으로 지역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던 이 지역들에 대한 연구로 그 지평을 확대해 갈 필요성이 있다.

4) 柳興校·洪俊豹, 「전주 도시구조의 변화 - 일제시대-」『도시 및 환경연구』제5집, 1990,

달과 도시계획연구』를 들 수 있다.[5] 이 연구에 의해 전통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전북지역 중추도시 역할을 하던 전주 성곽도시가 식민지화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이 대체적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가 밝히고 있듯이 1907년 성곽폐쇄시의 정부측 움직임이나 민중들의 대응 등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측으로 재구성한 측면이 많다.

또한 박선희는 「일제시기 근대도시의 식민성에 대한 고찰」에서 그 사례로 전통도시 전주를 중심으로 지리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도시 전주가 식민지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적 근대성이 어떻게 도시공간에 표출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그에 따라 시구개정을 통한 일본인 거주지 확보, 거주공간의 민족별 분리, 조선인자본의 근대적 성장의 한계, 대정정(大正町) 개발을 통한 일본인 중심의 도심형성 등 그 식민성을 도출하였다.[6]

이 연구들을 통해서 전주의 근대도시로의 발달과정과 그 식민지적 특성이 대체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의 관점은 건축학적, 지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도시공간의 형성 실태에 대한 복원과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전주의 거주공간에 대한 민족별 분리에 대한 결론은 전통도시 전주의 경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근대 도시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상공업화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장의 설립과 자본가와 노동자로 대표되는 사회계층의 형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무엇보다 긴급히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전통도시는 종래의 상품화폐경제 발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래세력 즉 제국주의의 식민지 전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전주는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긴급하게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 강제병합 이후에 대부분의 전통도시들은 개항장도시들에 밀려 개발이 억제되었다. 전주도 일제의 전통도시에 대한 선억압 후개발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선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전북지역에 개항장이었던 군산을 부로 승격시키고 이리에 배후도시를 건설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북지역의 중추도시였던 전주가 개발억제정책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각 지역 중핵도시의 중심지를 옮기기 위하여 도청소재지 이전정책, 면제 지정을 통한 세력 분할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듯 일제의 개항장도시 육성정책은 곧 전통도시 억제정책으로 변질되어 전주에는 도청소재지가 그대로 남게 되었지만, 시가지정책과 관련하여 그 운용과 실질적인 내부구조가 어떻게 변용되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셋째, 전주는 전주평야를 배경으로 미곡류, 지물류, 직물류가 유명하여 자본주의적 상공업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점은 일제의 시가지 개발과 식민지 지배정책에 의해 어떻게 사회경제적으로 재편되고 변용되어 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대체로 도시화와 공업화는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바로미터가 된다. 일제강점 초기에 전통도시 전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시구개정을 통해 거주공간과 상업지구, 공업지구가 어떻게 변화되어가는지, 한국인 대상점 자본가들은 어떻게 대응해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

5) 張明洙, 『城郭發達과 都市計劃硏究一全州府城을 중심으로』(學硏文化社, 1994).

6) 박선희, 「일제강점기 도시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전주를 중심으로」『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2호(2007).

이러한 연구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1894년부터 1930년까지 전통도시가 식민지적 도시로 재편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북지역 특히 전통도시 전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7]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 식민도시에 대한 기존 연구가 개항장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 제고하고, 전통도시의 국내외적 정세 변화에 따른 식민지적 개발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활발한 일제시기 도시 연구와 역사적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는 한국의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자료, 일본의 국립공문서관, 외교사료관, 방위성사료센타, 국회도서관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신문, 잡지자료, 지도, 수기 등을 참조하고자 한다.

Ⅱ. 제국주의 전쟁과 일제의 전북지역 거점도시 개발 관계

이 장에서는 일제가 전북지역에 거점도시를 지정하고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제국주의' 식민지쟁탈전 즉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 러일전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8]

주지하듯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식민지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열강과 열강 사이에서 약소국가 자체가 전쟁 배상 일환으로 넘겨져 식민지로 전락하기도 하였고, 일본처럼 후발자본주의로 성장하여 식민지를 획득하면서 제국주의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부산포가 1876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뒤, 1910년 완전히 강제로 합병될 때까지 약 25년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모두 조선에서 치러졌고, 그 결과 또한 대만과 조선의 식민지로의 전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은 곧 한국의 국가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제가 전북지역과 관계를 맺고 거점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1894년 청일전쟁 시기이면서 동시에 동학농민전쟁 시기였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전주의 도시화가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장명수 연구에서 성곽 철폐 등과 관련되어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도시의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철도부설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군이 군용으로 긴급히 개설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의, 경인, 경원, 경부선, 삼랑진선 등이 개통하게 되었다.[9] 전주의 경우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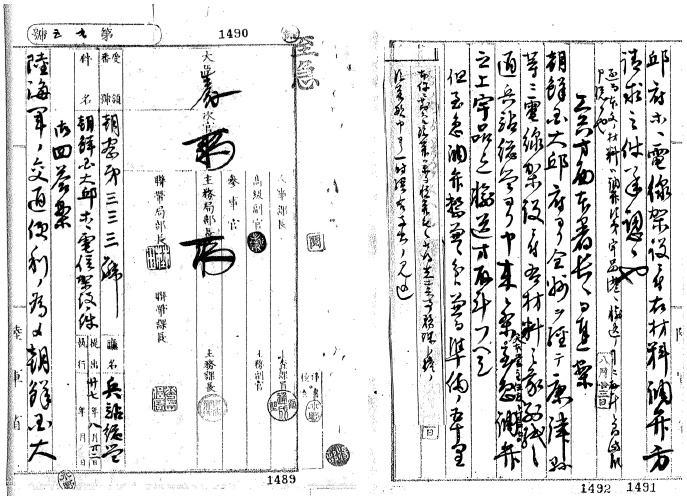
7) 전통도시 전주에서 시가지계획과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일제의 만주, 중국침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이후 조선을 대륙병참기지로 위치짓고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 대대적으로 독점적인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1930년대 전주지역 도시화와 공업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8) 청일전쟁, 러일전쟁, 동학농민전쟁은 일본, 청국, 조선이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인 전쟁으로서, 내용적으로 조선이 주요 전장터가 되고, 청일 러일전쟁 승패 결과에 따라 조선국이 배상의 대상으로 되었다는 의미에서 제국주의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 '제국주의'전쟁으로 표기하였다.

9) 군용철도의 실태에 대한 것은 조선총독부철도국, 『조선철도사』(1937) 참조. 철도설립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해 일본군이 철도보다 통신망을 시급하게 개설하였다. [자료-1]은 1894년 8월 22일에 일본 육군성이 작성한 공문서로서, 당시 인프라 작업의 하나인 통신망 정비 실태를 밝혀준다.

[자료-1] 1894년 일본육군성 병참총감이 작성한 통신망 개설 관련 기안문



출전; 陸軍省, 兵站總監「朝鮮國大邱等に電線架設の件」『着電綴(三)』明治27年7月~8月

위의 공문서는 일본육군성 병참총감이 작성한 「朝鮮国大邱等に電線架設の件」으로, 연대과장, 연대부장, 주무과장, 주무부장, 고급부관, 차관의 협조를 얻고, 대신의 재가를 받았다. 그 내용은 일본 육군성 병참총감이 조선국 대구, 전주, 강진 등에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청구하기 위한 공문서로 朝密333호로 긴급하게(至急)처리된 것이다.[10]
이 기안문에는 병참총감 가와가미 소로쿠(川上操六)가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11]에게 보내는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発第185号, 至急)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구부에서 전주에 이르는 선로는 조선국 재래선을 이용하고, 전주로부터 강진현 해안(고금도 대안)에 이르는 도로 약 45리 및 전주로부터 군산진에 이르는 약 10리간은 신규 가설함.
② 전주에서 강진현에 이르는 선로는 순창군, 담양, 광주, 나주, 영암군을 경과하고 군산진에 이르는 것은 신창리를 경과함.
③ 통신소는 대구, 전주, 고금도 대안 및 군산진 4개소로 한다.
④ 선로 건축법은 수송 재료를 이용하는 반영구법으로 한다.
⑤ 전선은 13번 동선 절연체는 에보나이트제 또는 도기제를 이용하고 전주(電柱)는 긴 18척, 20척, 스기마루를 이용한다.
⑥ 통신소용 기계물품은 최신식으로 한다.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서울대출판부, 1999); 허우긍, 『일제 강점기의 철도수송』(서울대출판문화원, 2010) 참조.

10) 陸軍省, 明治27年7月~8月 「着電綴(三)」'兵站總監'「朝鮮國大邱等に電線架設の件」M27-5-117(所藏館：防衛省防衛研究所)

11) 1842年 11月 12日 薩摩國 鹿兒島 加治屋町 출생

⑦ 통신소는 전주를 중계소로 하고, 그 접속법은 될 수 있으면 고금도 대안에 이르는 일면선으로 한다.
⑧ 기구 재료는 본부에서 부산으로 수송하고 동소(同所)로부터 강진현 부근으로 보낸다.

위의 공문서를 통해 일본육군성이 청국군과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 육해군 양군간 교통을 신속하게 하고 작전을 확실하고 쉽게 하기 위해 통신망을 가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국 부산부터 대구부까지 전선은 기존 것을 사용하고, 대구부터 전주를 거쳐 강진현 부근 해안까지, 전주부터 군산진까지 전선을 가설하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선가설을 위해 필요한 재료와 인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결재되어 있어, 이 결재기안문에 기반하여 조선국에 전선이 가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일전쟁시기에도 일본육군이 한국의 통신망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공문서가 발견된다. 1905년(明治38년) 8월 4일 병참총감부(兵站総監部) 참모장 오시마 켄이치(大島健一)가 체신차관 덴 겐지로(田建治郎)에게 보낸 조회안(총3263호)에 근거하여 검토한 공문서이다. 満一乾第六五七号 「韓国電信線変更ノ件」이다. 그 내용은 한국의 목포-대구선, 대구-금산선을 접속하여 목포-전주-대구-부산을 일회선으로 한다. 또한 옥구-전주선, 전주-군산선을 접속하여 옥구-공주-전주-군산을 일회선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12]
더욱이 통신망뿐만 아니라 도시화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중하나인 전주의 철도 부설에 대한 것도 일본 육군성이 재가하여 한국에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공문서는 육군성이 수령한 잠밀수제 2380호로서 외무성대신 카쓰라 타로(桂太郎)가 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에게 보낸 것이다. 1905년 12월 8일에 테라우치가 확인한 자료로서 공문서 제목은 「전주-군산간 경편철도 부설 허가에 관한 건」이다.[13] 이 전군경편철도는 1908년도에 완성되었다.[14]
이를 통해 볼 때, 전주지역의 도시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프라 정비 요소 가운데 통신망 건설과 변경, 철도부설, 도로개수 등이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당시 일본내각과 일본군은 전주를 전략적 요충지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전주 개발억제정책과 소규모 일본인사회의 형성

이 장에서는 일제가 침략함에 따라 세력이 확대됨으로써 군산과 이리가 전북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전주가 개발억제정책으로 상대적 정체기를 형성하는 실태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전주의 도시화에서 중요한 요소를 형성하는 인구 구성의 특징과 도시형성 과정의 근대성과 식민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농촌인구가 90% 이상이던 한국사회에서 이질적인 재조일본인사회가 전주에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그 자본주의적 관계가 이질적으로 형성되어

12) 日本陸軍省, 明治 38年「滿大日記 8月」
13) 日本陸軍省, 明治 38年「滿密大日記 明治 38年 11月, 12月」
14)『전주부사』 참조.

가는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1. 일제의 전통도시 전주에 대한 개발억제정책

먼저 전주의 도시화는 총독부의 선억제 후개발 정책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것은 전북지역 중심도시를 군산부로 하고 그 배후도시 이리로 만들어, 전주는 상대적으로 정체적인 상태로 머물게 하는 수법을 취한 것이다. 전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조선의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이 한창이던 1938년 경부터 시작된다. 원래 전주는 동학농민전쟁의 전략적 중심지로 일제가 주목하고 있던 지역이다. 전주지역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이자 호남의 보고로서 중요한 거점이었으나, 당장 권력을 틀어지고 행사할 수 없는 두려움의 도시였다. 그들은 전주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감지하였다. 따라서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후에도 전주의 중심지를 도시로서 개발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적 분할이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선억제정책을 구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선억제 정책으로서 가장 먼저 취한 정책은 12부제를 통해 전국 신흥도시에 지역 거점을 확정하고 전북지역의 거점도시로 군산부를 신설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도시로서 이리(현재의 익산)를 만들었다. 군산은 일본과 내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유사시 청국으로 가는 루트로서, 이리는 군산과 전주를 연결하고 경성과 목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개발하였다.[15] 한편 전통적으로 호남지역의 중핵도시였던 전주부는 행정단위로 부단위보다 하위단위인 전주군으로 바꾼 뒤 전주의 중심부도 부동면, 부서면, 부남면, 부북면 등으로 나누었다.[16] 마치 메이지정부가 자신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지방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폐번치현을 실시한 것과 같은 수법을 썼다.

둘째, 전주에 있는 전북도청의 수장과 면장은 처음에는 한국인을 채용하고 그 실제 운영팀은 일본인으로 채웠다. 면장의 경우는 합병 초기에 한국인을 등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관청을 움직이는 직원은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그것도 전주면 시기에 가면 모두 일본인으로 바꾸어버렸다. 1910년 10월 1일부터 전주군 부동면, 부서면, 부남면, 부북면장은 강대형이며, 1912년 김병욱, 1913년 3월 10일부터 김성규가 역임하였다. 그러나 1917년 10월 1일부터 전주면으로 개편되면서 면장은 일본인 柴田兼克가 부임되었고, 庄司政太(1921.4.1취임), 坂本直一郎(1922. 12.11), 久永麟一(1925.5.1.), 守山五百足(1927.3.25~1931.4.1)로 이어졌다. 이후 전주읍과 전주부로 승격되었지만 한번도 한국인이 수장이 되지 못하였다.[17] 이러

15) 군산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영정, 「일제강점기 도시성장;군산시사례」『한국사회학회사회학대회논문집』(한국사회학회, 1995); 김영정·소순열·이정택·이성호,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한울아카데미, 2006); 홍성찬·최원규·이준식·우대형·이경란,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혜안, 2006); 이성호,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 군산시의 사례」『쌀·삶·문명 연구』 창간호(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 연구원, 2008) 김종수·김민영 외, 『해륙의 도시 군산의 과거와 미래』(선인, 2009); 김태웅, 「일제하 군산부에서 주민의 이동사정과 계층분화의 양상」『한국민족문화』35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김태웅, 「開港~日帝强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한국문화』64(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16) 전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은 1935년 이후이다. 1935년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어 분리되고, 전주군을 완주군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총독부령 제112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 규정 (1935년 9월 28일).

17) 전주읍장 藤谷作次郎(1931.7.8), 明石翁助(1934.6.28), 전주부윤 高堂健二(1935.10.1) 竹本利作(1940.9.13) 難場照治(1941.5.14), 黑木儀壽(12.27)이다(조선총독부, 『직원록』, 각년판).

한 현상은 관청뿐만 아니라 조합이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전주의 도시개발의 주체는 일본인으로 전격 교체되었다.
이렇게 전북지역에서 중핵도시와 배후도시는 전통시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형되어갔다. 당시 언론사에서 출판한 책을 보면, 당시 전주지역에 권력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었는지 또한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그것은 기록상으로는 역으로 대한제국 시대의 관찰사와 양반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총독정치의 정당성을 세우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한제국 시대의 전주에 대해 당시 전북일일신문사『金蘭簿』에는 다음과 기록되어 있다.

> '전주는 관찰도청 소재지로서, 전주평야의 보고를 배경으로 한 풍요로운 땅으로서, 가렴주구의 악정이 수년전부터 전주를 중심으로 성행하여, 양반은 살찌우고 인민은 점차 배고플 뿐으로 인민의 원부(怨府)가 되었다. 이른바 잔혹한 고문, 불법적인 재판, 가렴주구가 행정·사법·경찰의 3대 권력을 장악한 관찰사의 절대권력에 의해 당당하게 행해져, 인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관찰사가 팔달루에 오르면 인민들은 그 관찰사가 움직이는 방향에만 신경쓰고 있다. 그 악정의 상징인 팔달루가 없어지고 지금은 남문 외는 성벽과 함께 철거되었다. 여하튼 총독정치의 혜택이 이어져 고문시대의 악정을 옛이야기 하듯이 흘러버리게 되었다.'[18]

전주지역 언론에서 처음으로 펴낸 당시 백서 같은 책에서 전주관찰사 악정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식민정치를 정당화시키려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러한 악정을 혁파하기 위하여 전북지역 일대 농민군들은 조선정부를 규탄하였고, 한때 전주 관찰도청을 접수하기도 하였다. 결국 일본군에 의해 처절하게 진압당하기는 하였지만, 일본인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이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저력은 두려움의 존재였고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고 3년 뒤 전주지역에 일본인들이 이주하였을 때, 그들은 일본인들에게조차 '용감한 개척자'라고 불리어졌다. 이들을 전주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불행하게도 전주에 가장 먼저 온 일본인은 총칼을 든 진압군들이었다. 일본군은 청일전쟁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을 무참하게 학살하였고,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 민가를 불태웠다. 혁명군에 참가한 부모와 친척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붙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가고 숨어서 살거나 의병투쟁에 참가하고 있던 때였다.[19]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로 시작되었다. 동학농민전쟁이 끝난 후에도 의병투쟁은 계속되었다.[20]

---

18) 小川雄三편,『金蘭簿』(全北日日新聞社, 1912), 서문.
19) 동학농민전쟁 관련 자료.
동학농민전쟁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裵亢燮,「東學農民戰爭 硏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李眞榮,「東學農民戰爭과 全羅道 泰仁縣의 在地士族 -道康金氏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서경문화사, 2002); 김행선,『한국근현대사강의』(선인, 2007); 한국사특강 편찬위원회,『개정신판 한국사특강』(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근현대사학회 편,『한국근대사강의(개정판)』(한울아카데미, 2008) 趙景達『異端の民衆反亂—東學と甲午農民戰爭』(岩波書店, 1998); 半藤 一利· 原 剛『徹底檢証 日淸·日露戰爭』(文春新書, 2011).原田 敬一,『日淸日露の戰爭』(岩波新書, 2011); 河田宏『民亂の時代; 秩父農民戰爭と東學農民戰爭』(原書房, 2011; 趙景達『近代朝鮮と日本』(岩波新書, 2012); 中塚明·井上勝生『東學農民戰爭と日本』(高文硏, 2013); 井上勝生『明治日本の植民地支配—北海道から朝鮮へ』(岩波現代全書, 2013).
20) 朝鮮總督府,『全州府史』(1940).

이렇듯 전주지역 배일사상은 극에 달하여 갔고, 국제정세는 점차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로 치달았기 때문에 전주지역 사회는 불안정하게 바뀌고 있었다. 군산거류지에는 일본인 경찰제도를 만들어 조선인을 억압하는 한편 일본인을 보호하는 체제를 정비하였으나, 전주에는 그러한 조치가 거의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일본인 장사치들이 늘어가고 있었다.[21] 전주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일본인들이 살던 임시가옥을 공격하였고, 지역사회의 모순은 증폭되어갔다.

2. 전주에서 소규모 일본인사회형성과 직업실태

한국이 강제 병합되기 전, 전주에 정주한 대표적인 일본상인은 大木良作, 山本悦蔵, 松本福市, 吉谷源吉, 志賀日俊 등이다. 오오키는 야마구치현(山口県)출신으로 1907년에 금물상을 개업하였고, 야마모토는 후쿠오카 출신으로 1908년 11월 전주의 성벽철거와 시가지 도로공사를 청부받았다. 요시야는 1910년 2월 인천에서 이주하였고 곧 주조 면허를 얻어 후에 '大正正宗'을 만들어 사업에 성공하였다. 시가는 미야기(宮城) 출신으로 군산에서 대변인을 개업했는데 1910년에 전주로 이전하였다. 전주지역에는 부산, 인천, 군산, 목포 등 개항장 도시보다는 훨씬 늦은 시기에 일본인 거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조약을 바탕으로 한 일본인 거류지가 없었고, 당시 일본인들 생명을 위협하는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운동 등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표 1> 1910년 이전까지 일본인 이주 호수 및 인구

연도	호수	인구	연도	호수	인구	연도	호수	인구	연도	호수	인구
1897	1	2	1898	2	3	1899	2	3	1900	4	10
1901	5	12	1902	6	18	1903	8	21	1904	9	25
1905	21	72	1906	62	216	1907	112	334	1908	140	420
1909	320	821									

출전;『호남의 일본인』, 21쪽

민간인이 전주로 이주해온 일본인은 1897년 이래 해마다 한두집이 증가하였으나,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에 62호 216명으로 증가하였고 3년 뒤인 1909년이 되면 320호 821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렇지만 개항장 군산과 부산과 같이 일본인 거류지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비하면 그 증가율은 그렇게 크다 할 수 없다. 군산부의 경우 1899년에 일인 77명이던 것이 1909년 현재 일인 3,220명으로 전체인구 7,373명 중 절반을 차지하였다.[22] 다음은 식민지가 되기 이전 전주에 거류하던 일본인들의 직업별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내용을 통해 전주에 사는 일본인들의 산업별 구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화를 통한 도시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1909년 5월말 현재 전주지역 거류 일본인들의 직업별 호구 및 인구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전주지역 거류 일본인 직업별 호구 1909년 5월말 현재

21) 小川雄三편, 앞의 책. '勇敢な開拓者'
22)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구에 대해서는『군산부사』1933, 18-19쪽 참조.

제1차 산업 ; 농업·농사경영 제2차 산업 ; 제조공업

구분	호구	인구	구분	호구	인구	구분	호구	인구
농사경영	2	18	鍛冶屋	1	7	인쇄업	2	7
농업	9	15	履物제조	1	3	製麺業	1	4
소계	11	33	연와업	2	3	제지업	1	3
			연초제조	1	3	주조업	1	4
			염물업	1	3	소계	11	37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병합 이전 전주 거주 일본인 307호 807명을 대상으로 직업 동향을 분류해보면, 제 1 차산업 농업 11호 33명, 제 2 차산업 공업 11호 37명, 제 3 차산업 상업·서비스업 182호 491명, 공무·교육 97호 225명, 회사원 8호 21명, 기타 11호 4명 등 총 292호 733명이다.

이 중 단일 직종에서 가장 많은 것은 관리이며 97호 225명이다. 이어서 대공 34명과 잡업 26명이 눈에 띈다. 관리가 많은 것은 통감부 설치 이후 전라북도청에도 일본인이 채용되었고, 전주우편국, 전주경찰관, 전주구재판소, 전주재무감독국(국장佐々木正太), 재무서 등이 신설되어서, 많은 일본인이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23] 한국이 완전히 강제병합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인 관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전북지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일본인 세력이 확대되어 전주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3차산업 ; 상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공무 교육 은행 회사원 기타 포함)

구분	호구	인구	구분	호구	인구	구분	호구	인구	구분	호구	인구
관리	91	212	음식점	3	9	오복상	2	4	인력차업	1	1
교원	6	13	세탁업	2	9	토목청부	1	5	운반업	1	1
은행원	7	16	신문사원	4	8	야채물업	1	4	수의	1	1
회사원	1	5	馬方	4	7	質屋	3	4	산파	1	1
大工	34	76	매약업	3	7	종묘판매	1	4	入歯師	1	1
잡업	26	64	사진사	2	7	곡물상	1	3	疊屋	1	1
잡화상	15	49	유희장	4	6	고물상	1	3	魚商	1	1
과자상	16	46	두부점	3	6	재봉업	2	3	승려	2	3
여관업	6	31	금물상	1	6	女髪結	2	3	무직	9	1
작부	-	21	토목인부	3	5	점등업	1	2	소계	292	733
이발업	4	17	靴工	3	5	재목상	1	2			
요리점	6	16	집배인	2	5	안마	1	2			
금대업	4	13	시계상	2	5	도자기상	1	2			
대서업	3	11	芸技	1	5	총포화약	-	1			

출전;『호남의 일본인』 26쪽에서 작성하고 교육·공무, 회사원, 상업서비스업, 종교인·기타 순으로 정리하고 종사자가 많은 순으로 배열. 무직은 원문 그대로 표기.

그 다음으로 대공, 잡업층이 많은데, 일본인들이 증가하여 가옥을 일본식으로 개조하거나 일본식 가정을 신축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요리점, 음식점, 여관이나 각종 점포 일도 많았다. 잡화상은 일본인 대상과 조선인 대상으로 하는 상업으로 나뉘어졌고, 상품은 강경과 군산에서 들여왔다. 과자상은 원래 일본인들이 고객이었는데, 조선인에게 호평을 받아 다가시(駄菓子)를 제조 판매하였다.[24]

23) 古川昭,『湖南の日本人』(ふるかわ海事事務所, 2005), 23-24쪽.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상업과 제 서비스업이다. 일본인들이 전주 시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전주의 자본주의화에 따라 은행원, 신문사원, 이발점, 세탁업, 사진사, 목욕탕업 등 신종 업종들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 업종들은 근대에 들어와 생긴 업종들로서 한국이 강제 병합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인들을 통해 전주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주에서 자본주의적 변화는 통감부 정책과 일본인들의 이주로 인해 더욱 급속하게 변화되어갔다. 전주에도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던 금융기관이 전주에도 설치되었다. 1906년 7월 전주농공은행이 영업을 시작하여, 보통은행 업무 외 부동산담보 대부 농공업자에 대한 무저당 연대 대부 등을 담당하였다. 대표자는 박영근이었는데,[25] 지배인으로 시오다(塩田興助)가 취임하였다. 또한 시중에는 조선인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이 유리했으므로, 전주에서도 택지와 가옥을 담보로 융통하였다. 더욱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나가레로 토지를 차압하여[26] 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 전당포(質屋)를 운영하는 자도 점차 나타났다.

이처럼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전쟁을 치루고 있던 와중에, 전주지역에는 관료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 상공업자, 건설업자들, 서비스 종사자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전주지역에는 통감부 설치 이후 전북도청과 각종 관청에 일본인 관료, 교원 225명이 거주하게 되었고,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일본인 549명 등이 거주하게 되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지배인으로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일본인들이 대부업을 통하여 조선인들의 토지를 점차 자신들의 소유로 전환시켜갔다.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해버리기 이전 이미 전주지역에도 두 개의 중요한 민족이 거주하고 생활하게 되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로서 적대적인 민족모순이 형성되어 갔다.

3. 강제병합이전 전주의 식민지적 지배장치 강화

전주지역의 민족모순은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려는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현되는 것이었다. 러일전쟁 승리 후 설치한 일제의 한국 컨트롤타워 통감부는 전주는 물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생활을 지켜주고 지역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동학농민전쟁의 중심지이며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 사법 관청의 설치와 경찰과 군대조직을 설치하였다. 재전주 일본인을 관리하는 관할 부서는 군산영사분관으로, 군산영사경찰의 순사가 주재하고 있어 일본인을 보호하고 있었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에 의해, 일본이 외교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도성의 일본공사관을 폐지하여 통감부를 두었고, 각지의 일본영사관을 이사청으로 바꾸어 군산이사청을 개청하였다. 그후 각 이사청에는 지청이 설치되었는데, 군산에는 1906년 11월 18일 공주와 전주에 지청이 설치되었고, 동년 12월 25일에 공주지청, 1907년 2월 5일에 전주지청의 사무를 개시하였다.[27]

---

24) 朝鮮硏究會, 『新朝鮮成業銘鑑』(1917年 大正6年8月), 全羅北道編, 2-3쪽.

25) 당시 박영근은 전주실업계의 중진으로 1872년 생이다. 당시 주소지는 全州郡 大和町 1의 5.(株)全州農工銀行長, 全州完天合資社 社長, 全州女子蚕業傳習所長을 역임(『신사보감』「신사」, 494쪽).

26)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당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로 옮겨가는 것.

27) 『전주부사』 참조.

이사청지청에는 부이사관을 두었다. 그 주요한 직무권한은 구역내 행정사무, 소송사무, 증명등록등기 기타 비송사건, 외국인에 관한 사무, 한국지방관의 지휘감독 등이었다. 전주지청 부이사관에는 다케자키(竹崎六次郎)가 임명되어 한국지방행정에 대해서 간섭하고 감독하였다.

1907년 7월 14일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인도 한국관리로 등용되었다. 지청 부이사관은 모두 각 도 서기관에 채용되어 한국 지방행정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다케자키는 재임기간 동안 전주의 유지층을 포섭하기 위하여 전주군민회를 조직하였다. 회장에 백낙선이 선출되어, 전주군내의 교통, 위생, 교육이나 빈민구제에 대해 조사 협의하였다. 이 군민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였으나, 사립학교 설립이나 학교 교육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02년 12월 일본인 전용 우편취급소를 설치하였고, 1905년 4월 1일 '한국통신기관위탁에 관한 취극서'가 조인되어, 우편전신전화사업을 일본정부가 관리하게 되자, 전주 우편취급소는 군산우편국 전주출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1906년 7월 전주우편국으로 승격되었다.

사법제도로서 전주에 전라북도 재판소가 설치되어, 1907년 법무보좌관 青木幹造가 배치되었고, 옥구항재판소에는 보좌관보 鈴木林次가 임명되었다. 제3차 한일협약 제3조 규정을 내세워, 일본 본국에서 한국재판소로 많은 일본인 판검사가 침투해와 한국의 소송사건은 이들 판검사들의 영향력이 컸다. 신설된 전주구재판소에는 판사 前田新兆, 青特世 西村茂夫, 鎌田三郎, 검사 志水高次郎, 石川信重가 배치되었다.[28]

이렇듯 다른 개항장에 비하여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일본인 사회가 전주와 같은 전통도시에도 형성되었으니 다년에 걸쳐 항일투쟁도 지속되었다. 특히 전북지역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 전국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주에는 일본인들의 이른바 치안유지를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1910년 한국병합 이전에 이미 일본측은 한국측에 경찰권의 양도를 재촉하여, 경찰사무 일체가 통감 관리하로 넘어가 버렸다. 그리하여 통감부 경찰관제에 의해, 경무총장에 헌병사령관인 육군 소장 아카이시 지로(明石二郎)가 임명되어, 각도 경무부장에는 육군헌병중좌나 소좌가 임명되었고, 육군헌병중위 이상 89명이 경시로 채용되었다.

이때 이미 헌병제도를 고쳐 그 주요한 임무를 치안경찰로 변경하였다. 1909년 6월말 현재 헌병장교 이하 2,380명, 헌병보조원 4,309명의 규모에 달하였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전라북도내에는 전주, 진안, 임실, 고창, 군산 등에 경찰서가 설치되었고, 헌병대는 익산, 남원, 고부, 금산에 분대가 배치되었다.[29] 동학농민전쟁의 격전지에 일본정부가 헌병대를 배치한 것은 이 지역의 민심을 고려한 특대조치라고 할 수 있다.

1876년 이후 조선 각 개항장에 설치된 이사청은 일본내각 외무성 관할이었으며, 일본인들을 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사법, 외교, 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일왕과 군부, 내각은 청나라와 러시아를 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거류지에는 암암리에 육해군을 위한 군수기지와 훈련연병장 등을 설치하였다. 특히 1894년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의 전쟁시기에는 일본군이 직접 조선의 내륙을 침범하여 무수한 동학농민군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주의 성곽은 3분의 1이 불에 타거나 파손되었다.[30]

일제는 전라도지역을 요주의 지역으로 특별감시하였고, 통감부를 이후에는 각종 기관을 설

28) 『호남의 일본인』 26쪽.
29) 위와 같음
30) 성곽도시 파괴에 대한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장명수, 앞의 책, 179-187참조.

치하여 제도를 정비하였고, 자신들의 통치방식에 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각종 경로를 통해 철저하게 억압하는 장치를 만들어나갔다.

Ⅳ. 전주지역 시구개정과 지역개발의 식민성

1. 전주지역 시가개발의 목적

전주지역 시가개발의 식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정권의 도시개발 목적이다. 일제가 한국에서 도시를 왜 개발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정치권력 변화과정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즉 메이지정부 수립과 수립 이후 일본 대외팽창정책의 정점에는 죠슈벌(長州閥)이 있었고, 죠수벌 출신자는 일본 육군뿐만아니라 일본의 정치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내각 수상은 죠슈벌 지도자 가츠라 타로(桂太郎, 1908.7-1911.8)였으며, 한국통감부 제1대 伊籐博文, 제2대 曽根荒助, 제3대 통감이자 제1대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는 모두 죠수벌 출신으로 핵심적인 지도자였다. 육군대장을 전역한 테라우치는 야마구치 출신으로 조선총독으로 근무하다 일본의 내각 수상까지 역임하였다 (수상역임 1916년 10월-1918년 9월)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도시개발 정책도 조선군과 마찬가지로 이 파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었다.[31] 이 파벌들은 조선을 중국침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조선총독에게 조선 통치 지역 행정권은 물론 군대를 지휘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32]

조선총독부는 중국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개항장, 개시장을 먼저 개발하였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구조가 갖추어지자, 물자조달을 위해 필요한 전통도시들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개발정책으로 선회하였다. 특히 1930년대 대륙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경인공업지구, 북선공업지구, 남선공업지구, 서선공업지구 등 각 지역별로 공업지대 형성의 구도를 만들고 서선공업지구에 군산을 비롯하여 전주도 포함시켰다.[33] 조선공업지대 개발은 시가지개발계획과 함께 추진되었다. 그 정책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조치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발효이다. 시가지계획은 1934년 나진과 1936년 부산 등 전략적으로 긴급한 도시가 먼저 추진되었고, 전주도 1938년에 시가지계획구역이 결정되었고 공업지구 예정지가 정해졌다. [34] 그러므로 전주에서 본격적으로 시가지계획이 실시되는 것은 1938년 이후이며, 그 이전시기에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주를 분할지배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나, 일본인들의 중심지 생활 공간의 확보를 위한 성곽의 철폐, 시구 개정, 상하수도가 설치되는 정도였다.[35]

---

31) 신주백, 「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 조선주둔 일본군」『한국사연구』 109호, 123쪽 참조. 1907년 [제국국방방침]에 따라 일본정부와 군부의 관계는 변질되었다. 일본군부는 정부의 재정과 외교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국방방침을 천황의 권위를 배경으로 내각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北岡坤一, 앞의 책 참조.

32) 칙령 제319호,『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제1호-제53호.

33) 조선시가지계획과 공업지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경남, 앞의 논문(2003) 참조.

34) 전주의 근대도시 설립 과정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1930년대의 시가지계획과 공업지구 형성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별도의 논고를 준비하고 있다.

3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명수 앞의 저서와 박선희 앞의 논문, 유응교·홍준표 앞의 논문을 참조.

2. 전주의 시구개정과 시가지구획의 변화 실태

지금까지 연구에서 시구개정 실태나 민족별 거주지 분리 등에 대한 실태가 대체로 밝혀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주의 시가지개발에서 주거지구, 행정지구, 상업지구의 실태, 민족별 거주지 분리, 종교시설의 공간적 분포 등에 대하여 재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전주의 시구개정과 시가지구획의 변화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자. 다음은 1938년 현재 시가지계획구역예정도에 시가지 구획과 각 동별 배치상황, 주거지구, 행정지구, 상업지구의 실태에 대한 그림표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920년대까지이고, <그림 1> ①번 본정에서 ⑩번 고사정까지(그림에서 사각표시안)해당된다.

전통도시 전주의 시구개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곽철폐이다. 1907년 대한제국 고종의 명령에 의해 한성·평양·대구·전주·함흥 등 성곽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호남지역 행정과 상업중심지의 상징이었던 전주성곽도 철폐되게 되었다.[36] 물론 동학농민전쟁 때 많이 소실되기는 하였지만, 성곽이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전주 서문밖에서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성곽안 중심지로 집중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구한말 성곽철폐 이후 전주의 시가지 구역이 변경되는 시점은 대체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총독부가 전주면, 전주읍, 전주부로 승격시켜가는 시점과 관련이 있으며, 그에 따른 구역변경과 관련하여 1945년까지 대체로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917년 제1차 구역 변경시기 523,732 ㎡(성곽 안 면적은 180,000㎡), 1931년 제2차 2,813,676㎡, 1940년 제3차 구역변경시기 7,746,000㎡이다.

먼저, 전주면 시기는 1910년 10월 1일 1931년 3월 31일까지로 제1차 구역 확장 이전 전주면 실태는 다음과 같다. 1910년 10월 1일 지방관관제 공포와 함께 전주에 전라북도청이 설치되었으며 같은 달 부령 제8호에 의해 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종전의 도감을 폐하고 새로 면장을 배치하였다.[37] 1913년 12월 6일 전라북도 고시 제73호에 의하면, 부서, 부동, 부북, 부남 등 4개면은 대정정1정목에서 대정정 7정목까지, 본정1정목에서 본정4정목, 다가정, 팔달정, 청수정, 풍남정, 대화정, 화원정, 고사정, 완산정, 서정, 상생정, 노송정으로 바뀌었다. [38] (<그림 1>의 번호부여 지역 참조)

군산을 전북의 중심으로 삼고 전주의 개발을 억제한 것은 1914년 조선총독부가 12부제(현재의 광역시단위)를 선포하면서부터이다. 총독부는 '제국신민'즉 일본인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를 지정하였는데, 경성, 평양, 인천, 부산, 성진, 청진, 신의주, 원산, 군산, 목포, 마산, 진남포 등이었다. 12부를 정한 조선총독부 도시계획의 최초 단계에서는 전통도시들이 거의 제외되었다. 특히 호남지역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지였던 전주부, 감영소재지가 있던 곳을 제외시키는 수법을 써서, 일제는 정책적·구조적으로 전통도시의 개발 억제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

36) 전주부사에는 성곽철폐는 통감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인들이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자료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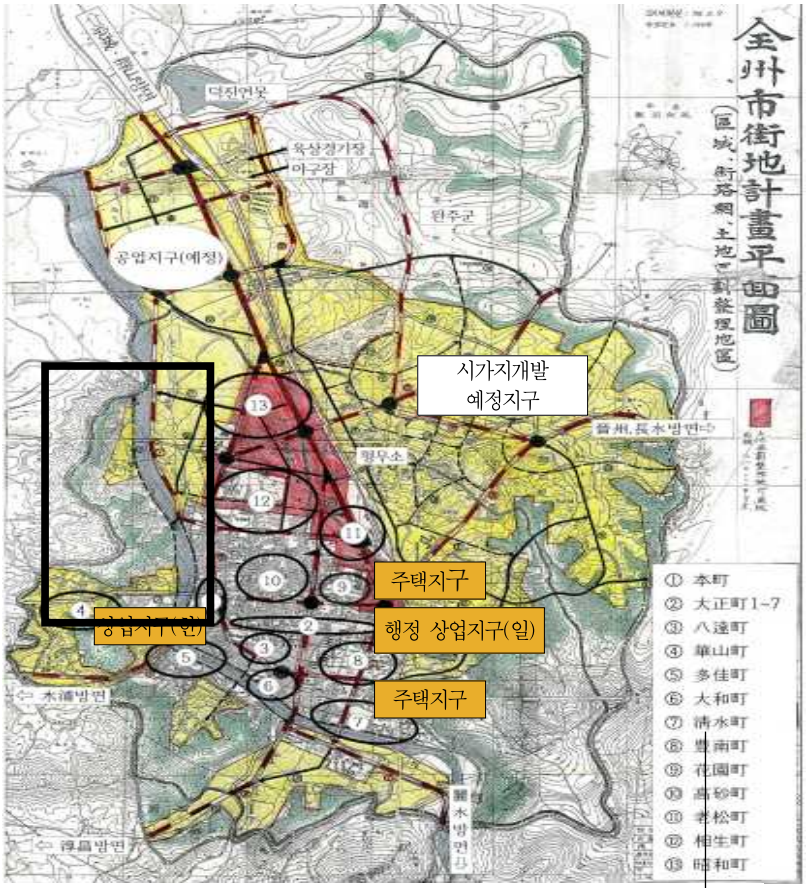
37) 전주군 부동면, 부서면, 부남면, 부북면장 강대형 1910.10.1- 김병욱 1912. 김성규 1913.5.10(『전주부사』전주면 이전시대 참조).

38) 1914년4월 1일부터 시행된 면의 명칭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장관 이두황) 전주면(부동면, 부서면, 부남면, 부북면 등), 용진면, 이동면, 조촌면, 상관면, 난전면 등이다.

전주 진출 초기에 일본인들은 서문쪽 다가정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국인이 남문과 본정을 중심으로 상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정에서 대정 1 정목부터 대정 7 정목(현재의 중앙동, 풍남동, 경원동 일대)을 개발하여 중심지화하는 수법을 썼다.(그림1 참조) 이 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주택지구는 화원정, 청수정, 풍남정 등이었다. 당시 전주의 일본인 인구는 3천명을 밑돌았으며, 1919년에 가서야 3천명을 넘어섰다.(<표 3> 참조) 군산의 경우는 1915년 현재 전체인구 11,000명인데, 그 중 일본인이 약 4,757명으로 43.25%를 차지하였다.[39] 전주에는 1930년에 가서야 5,204명을 넘어섰다. 그것도 민족별 비율면에서는 언제나 20%를 밑돌았다.

39)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6년.

<그림 1> 전주시가지의 시구개정과 시가지 구획 실태



조선총독부, 『전주시가지계획결정이유서』(1938)에서 재작성

1914년 4월 1일 전국을 대상으로 부군면동리 단위의 행정구역이 3분의 1정도 통폐합되었고, 전라북도의 경우는 어촌항이었던 군산을 부로 승격시키고, 호남의 중심지 전주부는 전주군으로 편성되었다.[40] 전주감영이 있던 소재지는 4개면을 전주면으로 통폐합하였다. 메이지유신의 성공한 권력자들은 폐번치현으로 지방장관급 권력자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취하였다. 지역의 경계를 쪼개고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취해진 정책은 개정 면제에 의해 면협의회가 설치되었고,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대정정에는 상수도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위해 전주상수도설치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사무소는 고사정 473-3번지에 먼저 설치되었고 고지의 배수공사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전주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통학교를 설치하였다. 철도는 경전북부선이 전주와 이리간에 개통되었다.[41]

1920년대가 되면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등을 거치면서 식민지 지배를

40)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체계적인 것은 越智唯士, 新旧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称一覽, 1917 참조.

41) 1913년 1월에 전북철도주식회사가 부설면허를 받아 1914년 10월에 준공하였다. 여객운송은 1914년 10월부터 시작하였으며 화물수송 업무는 1914년 12월부터 시작하였다. 사설철도로는 부산초기 전기선에 이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전주부사, 앞의 책, 294쪽 참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식민지 지배를 위한 조선총독부 체제를 구축하면서, 초기에 개항장 군산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던 방식에서 서서히 내륙도시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였고 일본인 관료가 전주면장으로 부임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표 3> 전주면 시기의 호구 및 인구 실태

연도	호구(한)	인구(한)	호구(일)	인구(일)	외호구	외인구	호구총계	인구총계
1919	2282	10551	891	3232	25	74	3168	13857
1920	2606	13036	812	2804	40	97	3458	15939
1921	2699	13024	822	2920	53	193	3574	16137
1922	2745	13168	873	3143	50	172	3668	16483
1923	3055	14437	998	3767	52	178	4105	18382
1924	3541	15763	985	3724	54	202	4280	19689
1925	3683	17283	988	3496	60	198	4731	20977
1926	3705	17602	1057	3998	76	245	4838	21851
1927	3729	17663	1060	4103	85	269	4874	22035
1928	3839	17838	1124	4154	85	266	5048	22258
1929	4333	18122	1189	4274	89	290	5611	22686
1930	6289	32136	1225	5204	130	502	7644	37842

출전;『전주부사』, 200-201쪽

위의 표를 보면, 1930년에 전주의 전체 인구가 37,842명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인이 32,136명, 일본인이 5,204명 외국인이 502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주지역의 인구증가는 이주해온 한국인, 일본인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구역을 확대함에 따라 증가된 수치이다.[42]

1930년 조선총독부 전라북도령 제12호에 의거, 전주군내 면의 구역을 변경하고 1930년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조선총독부 전라북도지사 김서규). 전주면에 편입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43] 서정 상관면 편입 대성리 일부, 완산정 이동면에서 편입된 화산리, 난전면에서 편입된 석불리 일부, 청수정 상관면에서 편입된 대성리 일부, 노송정 이동면에서 편입된 노송리, 소화정 검암리 일부, 화산정 화산리(완산정편입지역 제외), 상생정 상생리 등이다.

3. 전주의 민족별·종교별 공간 배치의 특징

그러면 개항장·개시장 거류지에서 도시로 성장한 경우 민족별로 공간이 이중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도시 전주의 경우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자. 기존 연구에서 개항장은 물론 전주도 거주지가 민족별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 식민성으로 지적되어 있으

42) 전주면장 모리야마 이오타리는 경계지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1926년 11월 5일부로 면협의회를 거쳐 조선총독부 앞으로 행정구역 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필요성에 대해 당시 면협의회 기록에는 '지금의 전주면의 구역은 부자연스럽고 협소하여 매년 계획에 지장이 적지 않을 뿐아니라 곧 군마선 철도가 개통되면 전주면이 발전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전주부사』, 138쪽).

43) 전주면시기; 1930년 7월 제1차 확장이전면적(이조성지 약 180,000평을 포함, 약 528,000평(0.113方里), 전주읍시기;확장 후의 면적 약 2,895,000평(0.62方里), 전주부시기;1940년 11월 제2차 확장 후의 면적 약 7,746,000평(16,600 제곱리) (출전;「전주부 경계 연혁도」『전주부사』, 141쪽).

나,[44] 다음 표를 보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많다.

<표 4> 각 정별 호구 및 인구 상황 (1939년 12월 말 현재)

정별	한국인		일본인		중국만주		기타외국		합계	
대정정1정목	64	288	44	319					108	507
대정정2정목	27	252	60	268					97	520
대정정3정목	41	259	83	352					124	611
대정정4정목	63	335	109	521					172	856
대정정5정목	70	419	29	132	1	1			100	552
대정정6정목	79	428	33	179					112	607
대정정7정목	63	355	30	122	2	7			95	484
본정1정목	167	1051	32	109					199	1160
본정2정목	114	753	10	48	2	7			126	808
본정3정목	109	551	85	434	2	7			196	992
본정4정목	205	1077	62	248					267	1325
팔달정	61	419	57	243					118	662
대화정	489	2538	109	476	4	7			602	3021
풍남정	188	1179	77	354			1	2	266	1535
서정	798	3846	7	120	1	5			806	3971
청수정	641	3098	17	81	1	4			659	3183
화원정	255	1032	52	238					307	1270
고사정	539	2429	231	986	4	9			774	3424
다가정	255	1454	5	16					260	1470
완산정	1143	5725	2	2					1145	5727
노송정	1089	5235	78	416	2	5			1169	5656
화산정	326	1628	1	4			7	29	334	1661
상생정	564	3187	88	337	2	6			654	3530
소화정	227	989	7	28					234	1017
합계	7587	38527	1308	5933	21	58	8	31	8924	44549

출전; 호남의 일본인

위의 표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동리에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대정정 1정목과 4정목에 일본인이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도 그만큼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전통도시 전주에는 개항장 군산이나 부산의 거류지처럼 압도적으로 일본인들이 분리되어 살았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은 사는 곳 순위는 1위 완산정, 2위 노송정, 3위 서정, 4위 상생정, 5위 청수정이다.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많은 지역은 대정1정목에서 4정목까지이고 그 외는 거의 혼재하여 살고 있다. 이점이 전통도시 전주의 민족별 인구분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주의 시가형성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으로 유교시설 향교가 성곽밖에 설치되어 있었고, 천주교, 기독교, 일본신도, 일본불교 등 다양한 외래 종교가 침투하여 그 시설물들이 설치된 것이다. 가장 먼저 전주지역에는 천주교 박해가 18세기 이래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나, 동학농민전쟁이 끝나고 일제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천주교가 인정되게 되었고, 성당도 산상에서 평지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전주는 기독교 세력 중에서 남장로교회의 지역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일제의 침투와 함께 신사, 일본 사찰이 설치되었다. 일제가 전주에 침투하면서 이러한 종교시설물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시가지 공간의 변형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44) 전주지역 민족별 분리 거주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박선희, 앞의 논문 참조.

전통적인 유학과 관련해서는 전통시대의 중심지인 풍남정에 공자묘 청수정에 조경묘와 향교가 위치해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전주지역 양반들은 중추세력을 형성하였다. 여기에 주목되는 것은 일본인들이 전주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에 18세기부터 박해를 받아오던 천주교 성당이 산상에서 평지로 내려온 것이다.[45] 천주교 전주지부 교회당은 대화정에 세워졌다. 프랑스와 한국이 맺은 조약에 의해 천주교가 인정되었고, 전주지역에도 전동성당이 평지에 만들어짐에 따라, 일제가 침략하기 시작한 시점에 전주 지역사회의 다각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일본인들이 전주에서 중심적인 민족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상징적으로 신사가 세워졌다. 일본신도는 메이지정부가 천황을 업고 국책으로 추진한 종교정책 중의 하나였다. 가장 먼저 서문밖에 살던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화산정에 천조황대신궁 전주신사가 만들어졌고, 요시노산(吉野山)신사가 소화정에 세워졌다. 그런데 개항장 도시와 같이 중심부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서문밖 외곽에 세워진 것[46]은 전통도시 전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사찰은 고사정에 집중적으로 세워졌는데 진종대곡파 쌍전사, 정토종 대념사, 조동종 완산사, 천리교 전주선교소 등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대정정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외 팔달정에 진종대곡파 백응사, 대화정에 신도팔판 교회본부가, 본정에 고의진언종 고야산 서원사 등이 설립되었다.[47]

또 하나 전주 도시공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의 전파와 관련해서 교회가 전주의 중심부와 서문밖에 각각 세워졌다는 점이다. 당시 전주지역은 기독교 세력 중에 남장로교회 관리지역이었다. 전주사람들은 일본이 침략함에 따라 민족적 억압이 심화됨에 따라, 기독교 교회는 하나의 사회적 탈출구로 기능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대정정에 구세군 전주지부, 고사정에 전주일본기독교회, 청수정과 본정에 남장로파 서문밖 예배당이 각각 세워졌다.[48]

이처럼 조선시대의 전주부는 일제의 전통도시 억압정책에 따라, 군산부가 독립하여 승격되었고, 이리가 배후도시로 만들어졌으며, 전주의 중심지는 전주면으로 한정되어졌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안정되어 가면서 점차 전주면도 시구가 개정되게 되었고, 면적도 확대되어 갔으며, 점차 인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민족별 구성으로는 조선인이 팔달정, 대화정, 본정, 풍남정 등에, 일본인이 대정정에 집중적으로 살게 되었지만, 일본인 집중 지구에도 거의 같은 수의 한국인이 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잡거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인 시설물들의 배치로부터 전주의 도시공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유교관련 시설물들은 구래 성문밖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세력인 일본인들의 상징적인 시설인 신사가 일본인 거주지와 연결되어 세워지고, 일본사찰이 구성문안 중심지로 들어와 설치되었다. 이것은 대정정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 위주의 시가지 재편과 권력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특히 오랜기간 박해를 받아 산상예배를 하며 마을과 격리되어 있던 천주교 성당이 평지로 내려온 것과 기독교 교회가 서문밖은 물론 성문안으로 들어온 것 등은 이 지역 주민들의 로칼리티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5) 전주 시가지 발달과 관련된 기독교 교회와 천주교 성당의 배치 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황명수, 앞의 책, 196-206 참조.

46) 홍성덕, 다가산에 세워진 전주신사, 왕도의 기를 누르다『전주대신문』2013년 1월 28일.

47)『全州案內図』(朝鮮印刷株式會社, 1931).

48)『위와 같음』

Ⅴ. 전주지역 상공업지구와 자본가·공장노동자 형성

그러면 이러한 전주의 굴절된 도시 재편과 자본주의적 일본인사회가 형성과정에서 상공업지구 형성과정과 한국인 상공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자. 당시 작성된 한국인 대상점에 대한 기록을 통해 전주지역의 상공업자들의 존재형태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주지역에서 상공업지구가 형성되어 가는 실태와 한국인 자본가들의 대응 실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 전주의 한국인 상공업자들의 존재형태

전주지역 한국인 상공업자들의 존재형태를 당시 전국 도시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 [朝鮮人会社 大商店辞典]에서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49] 이 책은 1927년 7월에 한국인 張在洽이 편찬한 것으로서, 전국의 한국인 상공가 중에 가장 중요한 상업지에 산재하고 있는 회사 또는 대상점을 망라하고 있다. 이 책에는 상점명, 주소, 전화번호, 전신대체번호, 생산 및 취급 품목, 주인명, 주무자명, 주인의 약력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전주에서 사업을 하던 상업 및 공업자본가의 존재양태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책에서 대상점의 기준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주요한 상업지구 본정, 대정정, 대화정 등 7개동에서 자본금 5천원 내외를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회사가 대상인 듯하다.

한국인들은 본정(현재의 고사동, 중앙동 일부)과 대화정(현재의 전동)을 중심으로 큰 상점을 설립하였다. 다음 표는 동별 업종별 분포 상황을 추출한 표이다. 총 44개로서 전국 5위를 기록하고 있다.[50] 당시 군산의 경우에는 한국인 대상점이 이리를 포함해도 12개 밖에 되지 않는다.

<표 5> 전주지역 한국인 대상점의 동별 업종별 분포 상황(1926년 현재)

업종	본정	대화정	대정정	다가정	서정	완산정	불명	합계
지물업	7		1					8
의약품업	5	4		1	1		1	12
운수업	4	1						5
직물업	3	1						4
가죽피혁	2		2					4
금융업	2							2
식료품	1							1
인쇄업	1							1
양복제조		1	1					2
공예품			1					1
서적	1	1						2
잡화		1				1		2
합계	26	9	5	1	1	1	1	44

출전; 張在洽, 『朝鮮人會社 大商店辭典』(副業世界社, 昭和2年1月)에서 작성.

49) 張在洽, 『朝鮮人會社 大商店辭典』(副業世界社, 昭和2年1月).

50) 한국인 대상점 순위는 1위 경성 170개소, 2위 원산 57개소, 3위 평양 52개소, 공동3위 대구 52개소, 5위 전주 42개소로 총 53개 도시 748개소이다(위와 같음).

<표 5>과 같이 본정에 한국인 대상점이 가장 밀집해 있으며, 본정 26개소, 대화정 9개소, 대정정 5개소 기타가 4개소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정, 대화정, 대정정을 중심으로 상업지구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지물업이 7개로 가장 많고, 의약품업 5개소, 운수업 4개소, 직물업 3개소, 금융업 2개소 순이다.
다음은 1876년부터 1917년까지 본정 소재 대상점 설립 실태를 나타낸 표이다.

<표 6> 1876년부터 1917년까지 본정 소재 한국인 대상점 설립상황

연번	설립연도	대상점명	자본금	전화	주소	업종	대표자	대표자 경력	주무자	사업내용	출처
1	1876년	완흥당 건재국			본정2정목 75번지	의약품업	백봉욱	14세때부터 약업종사		삼이, 당초재, 내외약종무역 및 기타위탁판매업	214
2	1896년	광창상점	30,000	175, 102	본정 2정목	직물판매업	이강원	한학		주단포목무역, 경성방직회사특약점 도량형기위탁판매점	213
3	1900년	최용묵지물상점	30,000		본정2정목	지물업	최용묵	상계경력 40년	최만홍	각종지물무역 및 油物 조선인삼 무역 판매	210
4	1902년	완풍당 건재국			본정2정목 73번지	의약품업	정재풍	한학		삼이,당초재, 내외국약종무역 및 위탁판매업	214
5	1906년	덕신상회		265	본정2정목	직물판매	김현섭	한학		주단및면사포기타제직물	198
6	1907년	완일당건재국			본정2정목	의약품업	박두근	한학	박정래	삼이, 당초재, 내외약종무역위탁 및 각종매약제조판매업	213
7	1910년	최정기상점		407	본정2정목	직물판매	최정기	어릴때상계 투신		주단면사포, 전주특산선자단선도산업, 기타 제 직물위탁매매업	211
8	1914년1월	완흥양화점	5,000		본정2정목	가죽피혁	김보언	상계경력 20년		각종양화제조 전문 기타 부속품 일식 판매	215

출전; 張在洽, 『朝鮮人會社 大商店辭典』(副業世界社, 昭和2年1月)에서 작성.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7년 완흥당 건재국이 본정2정목에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1914년도에 완흥양화점이 설립되었다. 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약품업, 직물판매업, 지물판매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한편 새로운 분야로 주목되는 것은 완흥양화점과 광창상점을 들 수 있다. 완흥양화점이 신식양복, 교복 착용에 따라 생겨난 변화이며, 광창상점이 경성방직 판매특약점이 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대상점들은 1927년경까지 신용력과 기술력으로 살아남아 있다고 하며, 주인들이 모두 한학을 수학하였다는 점과 상계 경력이 몇십년 된 베테랑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자본금 규모는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광창상점과 최용묵지물상점이 3만원이고 완흥양화점은 5천원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소규모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정 이외에도 대화정, 대정정, 완산정에 한국인들이 대상점을 설립하였다. 전북지물상회(대정정, 1901년 설립, 자본금3만원), 조선제선상회(대정정, 1906년, 2만원), 완성태기상회(완산정, 1908년, 3만원), 오유상회(대화정, 1910년, 2만원), 선원당건재국(대화정, 1911년) 기성당중앙약방(대화정, 1917년, 1만원) 등이 그것이다. 모두 지물업, 공예업, 직물판매, 약품판매와 관련된 업종으로 독점자본과 비교하면 소자본에 불과하지만, 상업자본금으로는 대상점의 범주안에 들어갔다. 주인이 한학과 다년간 상계에서 경력을 쌓은 사업가라는 점과 완성태기상회의 경우 교육받은 신청년 정인진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다음은 1917년부터 1926년까지 전주면 시기에 본정에 설립된 한국인 대상점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 본정에 설립된 한국인 대상점은 총 18개이다. 조선지

물류, 약품업같은 옛 상품 품목을 취급하는 곳도 있지만(1, 6, 8, 9, 16번), 금융업(2번), 고무피혁(3번), 정미업(5번), 운송업(10, 13, 17, 18번), 서점(12번), 인쇄업(11번) 등 새로운 자본주의적 변화에 따른 분야가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 전주의 한국인 상공업자들도 도시인들을 상대로 자본주의적 금융서비스와 교육활동, 무역활동, 언론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자들 가운데 삼남은행을 세운 박기순은 전북 실업계 중심인물이다. 삼남은행(三南銀行)은 1920년 3월 3일 주식회사 형태로 다가정 92번지에 설립되었으며 자본금 100만원 불입금 25만원으로 배당율이 8% (株)이다. 중역진으로는 전무이사 金駿熙, 이사 朴炳哲, 金丙熙, 白仁淑, 李海晩이었으며, 이사지배인은 일본인 山崎晴五郎를 채용하였다. 감사역은 일본인 牧村芳平와 한국인 殷成河, 李駿象이 담당하였다. 주식은 총 2만주로서 주주수는 114명이다. 대주주는 金駿熙(4100), 朴基順(3500), 金丙熙(1300), 金永哲(1000), 朴永根(950), 白仁淑(700), 馬學鎭(600), 朴碩奎(500), 佐佐木志賀二(500) 등이다.[51] 그는 또한 1914년 10월 면참여원이 되었고 나중에 중추원 참의까지 지냈으며, 그의 아들 박영철은 경성으로 가 상업은행 대표가 되어 경성 정재계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52] 또한 신일상회 유창근, 동일정미소 이재형, 형제당인쇄소 이주환, 정순운송점 최정기 등은 모두 어릴 때 상계에 투신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신용이 두터워 경향 각지에서 찾아온다고 한다.

한편 이들의 교육 정도를 살펴보면, 세창호지방 김봉규, 대구당건재국 박찬종, 김준석지물상점 짐준석, 호남지물 이자환, 전주지물 최용묵 등은 모두 한학을 수학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외국유학이나 중고등교육을 받은 사업가들도 있었다. 완합명조운송부의 박노수는 동경의 東洋大学을 민중사서점 김운영은 경성정신여학교를 졸업한 재원이다. 민중사서점에서는 전문서적을 주로 팔았으며 정찰제를 실행하여 에누리 악습을 타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선지물무역상회 유종진은 중등학교를, 삼성운수조의 엄주동과 최인성지물점의 최인성도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 중심의 본정에 대상점을 설립한 한국인 사업가들은 일제 강점하의 새로운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적으로 경영하였다. 또한 몇 십 년 동안 다져온 오랜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신용본위와 기술본위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해외 판매루트까지 가지게 된 상점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부산과 군산과 같이 일본인들이 포진하고 있어 한국인들이 대상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곳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전통도시 전주지역 상공업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1917년부터 1926년까지 본정에 설립된 한국인 대상점

연번	설립연도	대상점명	자본금	주소	업종	대표자	대표자경력	주무자	사업내용	출처
1	1917년 3월	세창호지방 (世昌號紙房)		본정2정목	지물업	최영선	한학	김봉규	각종지물 및 유물(油物) 위탁판매전문상	204
2	1920년 3월18일	(주)삼남은행	1,000,000	본정1정목 67번지	금융업	박기순	전북실업계의 중심	박준철	일반은행업	203
3	1920년 3월	전주고무상회	30,000	본정1정목	고무제품	김여상	잡화도매		각종고무화 도매상	207
4	1921년	신일상회	100,000	본정1정목	금융업,무역업	유창근	일찍상계투신		금융대부 및 무역업	205
5	1921년 3월	동일정미소		본정4정목	식료품공업	이재형	다년상계투신		미, 잡곡, 무역정미업 및 위탁업, 제사업	200

51)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52) 일제강점초기 한일 자본가의 중역겸임을 통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김경남, 「일제강점 초기 자본가 중역겸임제에 의한 정치·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한일관계사연구』 48(2014) 참조.

6	1923년 1월	대구당건재국		본정2정목58번지	상업	박찬종	한학	이석진	의약품	197
7	1923년 5월	김준석 지물상점		본정1정목	상업무역상	김준석	한학		지물 및 각종 유물油物	194
8	1923년 9월	영창당 건재국		본정 2정목	의약품업	최창영	가업	유평수	삼이, 당초재, 내외약종무역 및 기타 위탁판매업	206
9	1924년 8월	남선지물 무역상회		본정3정목	지물무역상	유중진	중등학교		조선지및양지각종유물무역판매겸위탁업	196
10	1925년 7월4일	□삼성운수조	5000	본정2정목	운수업	엄주동	보통학교		철도화물취급겸위탁판매업, 임실任實남원南原장수長水진안鎭安우마차업	203
11	1926년 5월1일	형제당인쇄소		본정2정목빌딩8호	인쇄공업	이주환	어릴때상계 투신	이용기	활판인쇄, 우미제본, 화양지물판매업	201
12	1926년 9월1일	민중사서점		본정2정목	서적	김운영	경성정신여학교	이용기	내외도서, 잡지, 출판 및 취차 및 문방제구	201
13	1926년 1월	◎三남선 운송점	15000	본정1정목	운수업	장석희	일찍미곡상에서 변경		철도화물, 대부, 창고업. 해륙물산위탁업. 남원, 진안, 장수우마차운반업	196
14	1926년 1월	최인성 지물점	20,000	본정2정목	지물업	최인성	보통학교		조선지물무역 각종 유물위탁매매업	210
15	1926년 1월	호남지물 상회		본정2정목	지물업	이지환	한학	이재형	조선지물무역, 각종유물, 위탁판매, 도산매상都散賣商	212
16	1926년 7월	전주지물상조합		본정	지물업	최용묵	한학	송길환	조선지물 개량주의	208
17	1926년 8월	완 합명조합 운송부	10,000	본정2정목	운수업	박노수	동경동양대학 졸업	김재호강봉의	철도화물취급, 대부, 창고업, 기타 임실, 남원, 방면 우마차 운반업	212
18	1926년 8월	정 정순 운송점	5000	본정2정목 36번지	운수업	최정기	어릴때상계 투신		철도화물취급,대부,창고업,기타임실,남원,진안방면우마차운반업	211

<표 8> 1917년부터 1926년 대정정, 대화정, 서정, 완산정 등에 설립된 조선인 대상점

<대정정>

연번	설립일	상점명	주소	자본금	업종	영업과목	주인명	학력	주무명	출처
1	1920년 9월	대동고무상점	대정정2정목	15,000	가죽피혁	각종고무화 도매상	이창호	한학	김득성	197
2	1926년 09월	구미식 양복점	대정정	5,000	양복제조	각종양복 제조전문	오석희	고등보통학교		194
3	1926년 9월	대흥양화점	대정정3정목	10,000	양화제조	양화	정봉형	다년간 농업에 종사		198
4	1926년 09월	대흥양화점	대정정3정목	10,000	양화제조	양화	정봉형			198

<대화정>

1	1918년 03월	고급스타르 양복점	대화정남문통	15,000	양복제조	신사복, 학생, 소아, 부인복, 교복제조전문	이기환	전주공립농업학교	고건식	195
2	1918년 10월	동문관서점	대화정남문통		서적	서점	김동수	전주농고		199
3	1922년 08월	주식회사 일삼상회	대화정 216	203,000	무역업 운송업	일반무역 및 위탁판매 및 운송업	김응두	전북실업계의 중진	전무 박공후	206
4	1923년 03월	보화당약방	대화정남문통		의약품업	한약종, 무역 판매전문업	박태호	고등보통학교		202
5	1926년 01월	제남당 건재국	대화정297		의약품업	삼이, 당초재, 내외국약종무역 위탁판매업	김태경	한학	조창구	209
6	1926년 05월	제일상회	대화정	30,000	잡화	화양잡화 및 화장품 도매 기타 편리화 개량화, 개량운동화 제조판매	박원식		김해성	199

<다가정>

1	1926년	박병수건재국	다가정85		의약품업	삼이, 당초재내외약종무역 및 위탁판매업	박병수	한학		202

<서정 및 기타>

1	1918년 01월	전일정미소	서정曙町		정미업	미, 잡곡, 무역 및 정미업 겸 위탁업	장병선	다년상계		207
2	1921년 03월 10일	임치과의원	전주읍내		의약품업	치과일반, 구강외과, 교정과	임택용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200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정 이외에 한국인 대상점은 일본인이 밀집되어 있는 대정정 2, 3정목과 조선인 밀집지역 대화정, 다가정, 서정 등에 설립되었다. 대정정에 진출한 한국

인들은 양복제조와 양화제조 등의 분야에 상점을 설립하여 전주사람 특유의 섬세한 솜씨를 자랑하였다. 구미식 양복점을 낸 오석희는 고등보통학교 출신이었고, 대흥양화점을 낸 정봉형은 다년간 농업에 종사하다가 전업하였다.

2. 전주지역 공업과 공장노동자의 실태

전주지역 공업과 공장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기 전에 먼저 전국의 업종별 공장수, 직공수, 생산액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보자. 이것은 전주지역 공장 실태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다음 <표- 10>은 조선공업협회가 조사한 조선공장명부에서 작성한 내용이다.
조선총독부 식산국에서는 1932년 1월 1일부터 1년간 상시 직공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상시 5인 이상 직공을 사용하는 공장을 조사하였다. 그 내용은 朝鮮工業協会에서 1934년 8월에 발행한『朝鮮工場名簿』에 수록되어 있다. (관영공장 및 정련공장은 미포함)

<표 9> 1926년 현재 조선의 공장 업종별 실태

업종별	공장수	비율	생산액	비율	직공수	비율	임금지불액	비율	원료재료 사용액	비율
방직공업	264	5.70	30,798,402	10.20	17,832	20.30	2,085,544	11.30	23,526,660	12.80
금속공업	220	4.70	3,015,770	0.90	2,648	3.00	534,032	2.80	1,700,239	0.90
기계기구공업	253	5.40	4,247,515	1.40	3,379	3.90	1,439,593	7.80	1,638,882	0.80
요업	319	6.80	7,582,060	2.50	4,945	5.60	751,830	4.00	920,922	0.50
화학공업	750	16.20	32,348,983	10.70	19,192	21.90	4,007,216	21.70	12,583,761	6.80
제재및목제품공업	174	3.70	6,824,252	2.20	2,838	3.20	1,976,609	10.70	4,140,437	2.20
인쇄업공업	240	5.10	9,179,005	3.00	4,503	5.10	1,515,016	8.20	3,204,339	1.70
식료품공업	2,142	46.30	192,075,286	63.60	28,531	32.60	5,068,901	27.90	133,685,104	72.70
가스및전기업	50	1.00	11,069,339	3.60	550	0.60	413,907	2.20	160,839	0.80
기타공업	213	4.60	4,527,467	1.50	3,149	3.90	632,300	3.40	2,197,624	1.10
합계	4,625	99.50	301,666,079	99.60	87,567	100.10	18,424,948	100.00	183,758,807	100.30

출전: 조선공업협회,『조선공장명부』(1934년)에서 작성

위의 표에 따르면, 1933년 현재 전국에 4,625 공장이 있으며, 그 생산액은 3억원에 달한다. 공장수와 생산액 모두 식료품공업이 46.30%, 63.60%로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공수는 87,567명으로 식료품공업 종사자가 28,531명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 19,192명, 방직공업이 17,832명 각각 32%, 21%, 20%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지불액은 18,424,948원, 원료재료사용액은 183,758,807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식료품공업은 약 73%에 이른다. 즉, 노동집약적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자립의 기초가 되는 기계기구 공업은 공장수도 253개(5.4%)에 불과하고, 생산액 4,247,515원(1.4%), 직공수 3,379명(3.9%)으로, 노동집약적 공업의 집중, 생산제 생산공업의 저발달이라는 전형적인 식민지형 산업구조를 나타낸다.
그러면 전주지역의 공장 설립과 종업원(회사원, 공장노동자 포함)의 실태를 살펴보자. 1933년 현재 전주지역 공장수는 총 37개소로, 방직공업 3개소, 금속공업 0개소, 기계기구공업 0개소, 요업 1개소, 화학공업 0개소, 제재 및 목제품공업 0개소, 인쇄업공업 4개소, 식료품공업 28개소, 가스 및 전기업 0개소, 기타공업 1개소이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조선공장명부에서 전주만을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다음은 1917년까지 전주지역 공장설립 상황을 나타낸 표이다.

<표 10> 1917년까지 전주지역 공장설립 실태(종업원 5인 이상)

연번	설립년월	회사명	위치	대표자	종류	회사 규모	방직공업	민족 구분
1	1906년12월	全北日報社인쇄공장	전주읍대정정1정목	松波千海	인쇄	A	인쇄업공업	일
2	1908년04월	牧村인쇄소	전주읍본정3정목	牧村芳平	인쇄	A	인쇄업공업	일
3	1908년04월	堀田인쇄소	전주읍팔달정	堀田隆吉	인쇄	A	인쇄업공업	일
4	1910년10월	吉谷주조장	전주읍대정정2정목	吉谷源吉	일본주	A	식료품공업	일
5	1912년05월	中本장유양조소	전주읍대정정4	中本萬吉	미증장유	A	식료품공업	일
6	1914년01월	완흥제화공장	전주읍본정2정목	김보언	피혁제품	A	기타	한
7	1914년10월	會津屋주조장	전주읍대화정	大島德三郎	일본주	A	식료품공업	일
8	1915년04월	松本정미소	전주읍본정4정목	松本精一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9	1915년10월	임전도정장	전주군조촌면동산리	임전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10	1916년09월	藤堂도정장	전주군조촌면반월리	藤堂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11	1916년10월	소전도정공장	전주군삼례면삼례리	소전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12	1916년1월	田村주조장	전주읍본정3정목	田村熊太郎	일본주	A	식료품공업	일

<표 11> 1917년 이후 전주에 설립된 공장 실태

연번	설립년월	회사명	위치	대표자	종류	회사 규모	방직공업	민족 구분
1	1918년09월	林도정장	전주군조촌면반월리	林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2	1918년9월	石村도정장	전주군삼례면삼례리	石村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3	1919년09월	山本정미소	전주읍본정3정목	山本市松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4	1920년08월	小山瓦공장	전주읍노송정	小山村市	屋根瓦	A	요업	일
5	1922년05월	大陽堂인쇄소	전주읍대화정	松尾代十郎	인쇄	A	인쇄업공업	일
6	1924년03월	일정정미소	전주읍노송정	최일문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한
7	1925년09월	松田도정장	전주군삼례면삼례리	松田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8	1925년10월	전일정미소	전주읍대화정	장병선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한
9	1925년10월	황두현도정장	전주군삼례면삼례리	황두현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한
10	1925년10월	岡野도정장	전주군삼례면삼례리	岡野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11	1926년09월	大內도정장	전주군조촌면반월리	大內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12	1927년01월	(주)이약사농장도정장	전주군삼례면후정리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13	1927년09월	삼례주조조합양조장	전주군삼례면삼례리	권일용	조선주	A	식료품공업	한
14	1928년02월	片倉제사방적(주)전주제사소	전주읍 상생정	小野春吉	생사	D	방직공업	일
15	1928년04월	조선양조합자회사	전주읍상생정	김용식	조선주	A	식료품공업	한
16	1929년09월	소전도정장	전주군삼례면삼례리	소전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17	1929년11월	手塚주조장	전주읍본정4정목	手塚直治	일본주	A	식료품공업	일
18	1930년 1월	윤성집도정장	전주군삼례면삼례리	윤성집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한
19	1930년05월	호남제사소	전주읍청수정	藤原彦九郎	생사	B	방직공업	일
20	1930년05월	대창정미소	전주읍본정4정목	정창술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한
21	1930년09월	삼공정미소	전주읍고사정	정종윤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한
22	1930년10월	이승옥도정장	전주군삼례면삼례리	이승옥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한
23	1931년01월	삼성정미소	전주읍노송정	定村重一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24	1931년06월	전북제사주식회사전주공장	전주읍노송정	전북제사(주)전주공장	생사	D	방직공업	일
25	1931년10월	다전농장정미소	전주군삼례면후정리	다전	精穀제품의 가공류	A	식료품공업	일

출전; 조선공업협회『조선공장명부』각년도

위의 <표 10>, <표 11>을 토대로 살펴보면, 명부상에서 가장 먼저 전주에 세워진 공장은 1906년 12월에 전북일보사 인쇄공장(대표 松波千海)이다. 이외에 인쇄업은 거의 일본인이 세운 공장으로서 종업원 5인 이상 소규모 공장이다. 특히 전주지역에는 방적공장과 식료품

공장이 압도적으로 건설되었다. 식료품공장은 전주 본정, 대정정, 대화정은 물론 전주군 조촌면 삼례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1917년까지 설립된 공장은 식료품공장 8개소, 인쇄공장 3개소, 주조장 3개소, 도정장 3개소, 정미소, 양조, 제화가 각 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정3, 대정정3, 팔달정1, 대화정1, 조촌면 2, 삼례면1개소로 분포되어 있었다.
1917년 이후 전주에 설립된 공장까지 포함하면, 동별로는 전주읍 본정7, 노송정4, 대정3, 대화정3, 상생정2, 고사정1, 청수정1개소가 분포되어 있고, 조촌면4, 삼례면10개소로 이 지역에 공장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자립적으로 자본주의를 육성할 수 있는 기계기구공업의 생산공장은 전무한 실정으로, 전형적인 식민지적 공업 발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주에는 방적공업에 편창제사방적과 전북제사주식회사 전주공장이 D급 규모로 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었다. 호남제사소 B 급 규모로 100명 이상, 그외 식료품공업, 생사공업, 인쇄공업 분야에 5-50인이 일하고 있는 A급 규모의 회사가 존재하였다. 아직 본격적인 공장지대가 형성되기 이전이지만, 생사 방적분야와 정미업 분야가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200명 이상 D급이 2개회사, 100명 이상 B급이 1개회사, 5-50명 이하의 A급이 22개 회사이므로, 최소 700명 이상 최대 1천명 이상의 공장노동자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은 주변 농촌지역에서 많은 유휴노동력이 전주로 들어와 공장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이 형성되었다고 한다.[53]

Ⅵ. 결 론

본고는 일제가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을 침략함에 따라 추진된 식민도시개발의 한 유형으로서, 전통적으로 전북지역의 중심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의 특성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요컨대 ‘전통도시’ 전주의 도시개발은 일제의 전략적 군사적 목적에 따라 개발되거나 상대적 정체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첨단 인프라시설이 설치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종속적·식민지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일제가 전략적으로 신설한 개항장 도시와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개발 양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종래 개항장에서 성장한 도시를 중심으로 연구되던 경향을, 전통도시의 변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근대 도시 연구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변형된 근대도시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병합 이전 일제는 개항장·개시장에 거류지를 만들어 일본인을 이주시키고 침략거점을 형성하였다. 일제가 한국에 거점도시를 개발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청일전쟁·동학농민전쟁·러일전쟁 등 일제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주의 군사적·전략적 위치 때문에 통신망·철도·도로 등 도시 인프라가 설치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과정에서 인프라를 구축한 주체는 일본내각과 일본군으로서, 전주를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여 시급하게 추진되었다. 그 사례로서 일본육군성 병참부가 추진한 부산－대구－전주, 전주－군산, 전주－강진을 잇는 통신망 구축을 들 수

53) 전주지역 임금구조에 대해서는 각 공장의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주지역 자본주의적 발달구조의 특성과 노동자생활상태, 기업의 내부구조, 노자간 갈등구조 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있다. 전주를 중심기지로 하여, 부산－대구 이외의 구간은 모두 이 시기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주와 군산간 경편철도도 1905년에 일본육군성에서 결재되어 추진된 것으로, 1908년에 완성하게 되었다. 군산과 전주간 도로와 교량의 개수도 계속 추진되었다.

아울러 전주지역은 전북지역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동학농민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통감부 시기에 정치적·행정적 상부구조를 거의 장악하게 되었다. 군산이사청 전주지청을 설치하였고, 전라북도청, 전라북도재판소, 전주우편국, 전주경찰관 전주구재판소, 전주재무감독국, 재무서 등에 일본인 관리를 파견하여 한국 지방행정을 직접 담당하였다. 또한 식민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라북도내 전주, 진안, 임실, 고창, 군산 등에 경찰서를 설치하였고, 익산, 남원, 고부, 금산 등에 헌병대분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금융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식산은행, 상업은행, 금융조합 등의 전북지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제 장치들을 통해 통감부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 주민들을 감시하고 자신들의 통치방식에 저항하는 자들은 각종 경로를 통해 철저하게 억압하는 장치를 만들어나갔다.

둘째, 강제 병합 이후 일제는 구개항장·개시장을 중심으로 신흥도시를 육성하였고, 종래 지역중심이었던 전통도시들에 대해서는 선억압·후개발정책을 취하였다. 신흥도시를 '부'로 승격시켰고, 전통도시들은 '면'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도청소재지를 신흥도시로 이전시킴으로써 제도적으로 전통도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격하되어 버렸다. 선억압정책의 대상도시는 전라북도의 전주는 물론 충청남도의 공주, 경상남도의 진주, 함경북도의 함흥 등 성곽도시가 대부분이었다. 일본내각과 천황의 정책을 시행하던 조선총독부는 전북지역의 경우, 개항장 군산항을 군산부로 승격시켰고 배후도시로 이리(현재의 익산)를 만들어 지역 판도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종래 호남지역에서 군사적·행정적·상업적 중심지이었던 전주는 여전히 도청소재지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정체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전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시점은 중일전쟁과 관련하여 조선이 대륙병참기지로 전환하게 되면서 '서선공업지구'로 선정되면서부터였다.

셋째,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도시개발이 되는 시점은 1917년 전라북도청과 전주면의 수장을 일본인들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였다. 혼마치(本町), 다이쇼마치(大正町) 등으로 동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대정정에 집중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상수도를 설치하였다. 특히 구성곽안의 중심지를 대정정1정목부터 7정목까지 시구를 개정하여 이 곳이 일본인 중심의 상공업지구, 거주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총독부관료들은 일본인들이 토지자본과 상공업자본을 축적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일본인들은 대부업과 부동산투자 수법을 활용하여 중심부의 토지를 집적함으로써, 한국인들의 토지가 점차 일본인들 수중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전주에서도 두 개의 중요한 민족별 문화가 형성되었고 적대적인 민족모순이 발현되는 객관적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전통도시 전주에는 개항장도시와 달리 민족별 거주지가 확연히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민족별 집중 거주지가 있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잡거형식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심지의 민족별 거주형태를 보면, 조선인이 팔달정, 대화정, 본정, 풍남정 등에, 일본인이 대정정1정목에서 7정목(현재의 중앙동, 풍남동, 경원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 집중 지구에도 거의 같은 수의 한국인이 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혼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54]

54) 이러한 잡거 현상과 상호 영향, 인식 등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영국 노팅험대 지리학 교수의 인도의 도시에 대한 근대성비판이론에서 제기되었다. 그는 올드델리 뉴델 리가 단순히 분리된 이중도시가 아니라 하나로 통치된 도시이며, 양쪽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주

또한 전주 도시공간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종교적인 시설물들의 배치로부터 전주의 도시공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향교와 유교관련 시설물들은 구성문밖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세력인 일본인들의 상징적인 시설인 신사가 일본인 거주지 주변에 만들어지고, 일본사찰이 성문안 중심지로 들어와 설치된 것은 권력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특히 오랜기간 박해를 받아 산상예배를 하며 마을과 격리되어 있던 천주교 성당이 평지로 내려온 것과 기독교 교회가 서문밖에 세워지고 일부가 성문안에 설치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로칼리티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주의 도심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세력이 주류를 형성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혼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통도시 전주는 전주평야를 배경으로 미곡류를 비롯하여, 지물류, 주단 등 직물류가 유명하여 자본주의적 상공업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강점은 일제가 일본인들에게 유리한 시가지 개발을 통해 구성곽안의 중심지구에 대정정을 만들고 집중적으로 상공업지구를 육성하면서 변용되었다. 하지만 전주의 한국인 상공업자본가들은 본정(현재의 고사동, 중앙동 일부)과 대화정(현재의 전동), 다가정을 중심으로 큰 상점을 설립하였다. 모두 지물업, 공예업, 직물판매, 약품판매와 관련된 업종으로 수십년간 상계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중소자본을 운용하였다. 전주의 한국인 상공업 자본가와 지배인들은 한학을 수학한 사람들이 대다수이었으며, 일본유학이나 중고등교육을 받은 사업가들도 있다. 이 점은 군산과 같은 개항도시와는 다른 특징이다.

1920년대에는 점차 업종이 다양화되어 전주의 한국인 상공업자들도 도시인들을 상대로 자본주의적 금융서비스와 교육, 무역, 언론, 교통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주에서 성장한 자본가 가운데 삼남은행을 세운 박기순과 일삼상회의 김응두는 전북 실업계의 중심인물로 성장하였고, 박기순의 아들 박영철은 경성으로 진출하여 조선상업은행의 대표이사가 되어 재계의 중진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1920년대까지 한국 전체의 공업발달의 특징은 노동집약적 공업에 집중되어 기계기구공업 등 생산제 생산공업은 미발달이라는 전형적인 식민지형 산업구조를 나타낸다. 전주도 이와 동일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주에는 방적공업에 편창제사방적과 전북제사주식회사 전주공장이 D급 규모로 200명 이상, 호남제사소가 B급 규모로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었다. 그 외 그외 식료품 공업, 생사공업, 인쇄공업 분야에 5-50인이 일하고 있는 A급 규모의 회사가 존재하였다. 전주에는 193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공장지구가 형성되기 이전, 생사 방적분야와 정미업 분야가 발달하여, 약 1천명 이상의 공장노동자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공장지구가 형성되기 이전에 전주에는 이미 상당한 수의 경제인구가 상공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관계인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관공서의 공무원들과 회사의 샐러리맨 등을 포함하면 도시의 자본주의적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계층이 주류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지역의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계를 가진다. 일제강점하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각 시기별 예산편성과 조달문제, 토지구획과정에서의 갈등문제, 자본가와 노동자의 내부구조, 학교조합·금융집단 등을 통한 유력자 계층의 네트워크 형성문제, 군산과 이리, 순창 등과의 지역개발에

장하고 있다. 이 논리에 대한 자세한 논평은 김종근「서평 식민도시 연구와 근대성비판이론의 만남」『도시연구 역사, 사회, 문화』제2호, 2009, 175-183쪽 참조.

대한 상호관련 구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 : 2015. 6. 30 심사완료일 : 2015. 7. 16 게재확정일 : 2015. 8. 8

참고문헌

朝鮮硏究會,『實業の朝鮮』(1911)
朝鮮工業協會,『朝鮮工場名簿』(1927)
『全州案內図』(朝鮮印刷株式會社, 1931)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鐵道史』(1937)
鎌田正一,『朝鮮の人物と事業』湖南編(實業の朝鮮社, 1936)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職員錄』
朝鮮總督府,『全州市街地計劃決定理由書』(1938)
陸軍省, 明治27年「着電綴(三)」
陸軍省, 明治38年「滿大日記 8月」
陸軍省, 明治38年「滿密大日記 明治38年 11月 12月」
小川雄三편,『金蘭簿』(全北日日新聞社, 1912)
朝鮮出版協會,『朝鮮紳士宝鑑』(1913)
朝鮮硏究會,『新朝鮮成業銘鑑』(1917)
東亞経濟時報社,『朝鮮銀行會社要錄』(1921-1942)
張在洽,『朝鮮人會社 大商店辭典』(副業世界社, 1927)
朝鮮總督府,『全州府史』(1940)
梶村秀樹,「植民地と日本人」『日本生活文化史』①生活の中の國家(河出書房新社, 1974) : 梶村秀樹著作集第1券『朝鮮史と日本人』(明石書店, 1992)
孫禎睦,『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硏究』(一志社, 1982)

木村健二,『在朝日本人の社會史』(未來社, 1989)
柳興校·洪俊豹,「전주 도시구조의 변화 - 일제시대-」『도시 및 환경연구』제5집(1990)
孫禎睦,『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上·下(一志社, 1992)
柳濟憲,「大邱圈地域에 있어서 空間構造의 近代化 過程」『지리학』 27권 2호(대한지리학회, 1992)
張明洙,『城郭發達과 都市計畵硏究ー全州府城을 중심으로』(學硏文化社, 1994)
小林 英夫編,『植民地への企業進出—朝鮮會社令の分析—』(柏書房, 1994)
淺田橋二,『帝國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 1994)
김영정,「일제강점기 도시성장;군산시사례」『한국사회학회사회학대회논문집』(한국사회학회, 1995)
정재정,『일제침략과 한국철도』(서울대출판부, 1999)
趙承衍,「일제하 식민지형 소도시의 형성과 도시 공간의 변화」『民俗學硏究』 제7호(國立民俗博物館, 2000)
신주백,「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 조선주둔 일본군」『한국사연구』 109호(2000)
오미일,『한국근대자본가연구』(한울, 2002)
高崎宗司,『植民地朝鮮の日本人』(岩波新書, 2002)
소순열 외,『전북의 시장경제사』(신아출판사, 2003)
김경남,『일제하 조선에서의 도시 건설과 자본가집단망』(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橋谷弘,『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吉川弘文館, 2004)
고석규,『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서울대 출판부, 2004)
內田じゅん,『在朝日本人硏究の動向と展望』(2004)
淺野豊美·松田利彦編『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信山社(2004)
허정도,『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신서원, 2005)
古川昭,『湖南の日本人』(ふるかわ海事事務所, 2005)
김영정·소순열·이정택·이성호,『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한울아카데미, 2006)
홍성찬·최원규·이준식·우대형·이경란,『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혜안, 2006)
박선희,「일제강점기 도시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 전주를 중심으로」『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2호(2007)
木村健二·坂本悠一,『近代植民地都市釜山』(櫻井書店, 2007)
이규수,『식민지조선과 일본 일본인』, 다할미디어, 2007
이규수,「개항장 인천, 1883~1910 : 재조일본인과 도시의 식민지화」『인천학연구』 제6호(인천학연구원, 2007)
이성호,「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 군산시의 사례」『쌀.삶.문명 연구』 창간호(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 연구원, 2008)
문영주,「20세기 전반기 인천 지역경제와 식민지 근대성 : 인천상업회의소(1916~ 1929)와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인천학연구』 제10호(인천학연구원 2009)
김종수·김민영 외,『해륙의 도시 군산의 과거와 미래』(선인, 2009)
김태웅,「일제하 군산부에서 주민의 이동사정과 계층분화의 양상」『한국민족문화』35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염복규,『일제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9)
김백영,『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문학과지성사, 2009)
허우긍,『일제 강점기의 철도수송』(서울대출판문화원, 2010)
김백영,「식민지기 한국도시사연구의 현황과 전망」『역사와 현실』 81호(한국역사연구회, 2011)
허수열,『개발 없는 개발 (개정증보판)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은행나무, 2011)
이규수,「재조일본인연구와 '식민지수탈론'」『일본역사연구』 제33집(2011)
김경남,「韓末 日帝의 鎭海灣要塞 建設과 植民都市 開發의 變形」『항도부산』 28(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

회, 2012)
김태웅,「開港~日帝强占 前期(1899~1933) 群山 地域 搗精業의 推移와 地域的 特徵」『한국문화』64(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오미일,『근대한국의 자본가들』(푸른역사, 2014)
김경남,「일제강점 초기 자본가 중역겸임제에 의한 정치·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한일관계사연구』48(2014)
坂本悠一編,『(地域の中の軍隊7) 植民地 帝國支配の最前線』(吉川弘文館, 2015)

【日文抄録】

1894-1930年「伝統的都市」全州における植民地都市開發と社會経濟構造の変容

金慶南

本稿は日帝が帝國主義戰爭の一環として韓國を侵略する際に推進された植民地都市開發の一類型として、伝統的に全羅北道の中心都市である全州を中心に植民地的都市開發の特性と社會経濟構造の変容の實態について考察した。要約は以下の通りである。

第一に、韓國の近代都市は日帝の侵略戰爭に伴い戰略的に開發されたという特性をもっている。「伝統的都市」全州は日清戰爭と東學農民戰爭の戰地であったため、日帝は、戰略的軍事的目的にしたがって、通信網·道路·鐵道などのインフラを設置した。しかし强制併合以後、日帝は、府制·面制を通じて伝統的な都市の開發を抑制する政策をとった。群山·釜山·仁川などは「府」として成長し、伝統的な都市としての全州府は、全州郡に所屬する複數の面に分割され、その中心部が「全州面」に指定された。全羅北道には、群山府を中心に背後都市イリが新設され、從來の全州中心の地域版図が変化していった。

第二に、全州には相對的に小規模の日本人社會が形成され、全羅北道廳や全州面を日本人が掌握するようになり、日本人中心の市街地を大正町一丁目から七丁目にわたって形成した。この過程は日本人による全州の侵奪過程であり、中心市街地が変形していく過程でもあった。また伝統的な宗教施設である宗廟や鄉校施設などは、旧城郭の外部に設置されていたが、新たに浸透した日本の寺刹·基督教·天主教など外來宗教關連の施設は、新たに形成された都心地域に配置された。こうした新しい都市形成過程は、全州の地域ローカルティーの形成に多大な影響を与える契機となった。

第三に、1920年代の全州には日本人中心の新市街地が形成され、商工業地區が形成された。ここでは、製紙業·工芸業·織物業·藥品業などの分野において數十年の經營ノウハウを有していた朝鮮人の中小商工資本家が、本町·大和町·多佳町を中心に、大商店を經營した。また、1920年代の朝鮮工業全体の特徵にみられるように、全州地域においても、低賃金勞働力に依據した勞働集約型工業が發達し、機械設備工業がほぼ皆無という、典型的な植民地型産業構造を示していた。全州には紡績工業·食料品工業·生糸工業·印刷工業などで約一千名以上の工場勞働者が形成され、官僚·會社員·サービス業從事者が增加し、資本主義的構造に社會経濟構造が変化していった。

この研究を通じて、日帝が戰略的に新設した開港場都市と、「伝統的都市」の植民地的開發の様相の間の、共通点と差異点が明らかになった。この研究は、「伝統的都市」の変形過程を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從來開港場において成長した都市中心に研究されてきた近代都市研究の、認識地平を擴張しようと試みた。こうした研究は、韓國の変形された近代都市に對する、總体的で体系的な研究基盤の形成において助けとなるであろう。

【キーワード】
伝統都市，戦略的都市開発，府制，面制，全羅北道，全州，資本主義，商工業地区